



TOKYO 2020

상상 이상의 올림픽

6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스포츠동아

강산 기자의 비하인드 도쿄



28일 지바 마쿠하리메세홀B에서 벌어진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가운데)의 인터뷰 때 자원봉사자가 마이크를 들어주고 있다. 지바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책임감 하나로 매일 고군분투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웃습니다

국제종합대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대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얼굴이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일탈과 불친절한 응대가 발미가 돼 해외 언론의 못매를 맞았던 것만 봐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2020도쿄올림픽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애초 8만 명 가량의 자원봉사자가 모집됐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우려 등의 문제로 1만 명 가량이 그만뒀다. 게다가 무관중 개최가 확정되면서 실제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더욱 줄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국에서 현장을 찾은 선수단과 관계자, 취재진을 완벽하게 응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노력과 환한 미소, 친절함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듯, 어떻게든 현장을 찾은 올림픽 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회의 이미지 또한 그만큼 향상될 수 있다.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그렇다. 특히 교통편 데스크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각종 관계자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해야 하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미디어 서버버스(TM)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것은 다 반사다. 어떤 경기장으로 가든 터미널을 거쳐야 하기에 차츰 버스 시간이 늦어지면, 일정이 완전히 꼬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방역택시(TCT)를 타더라도 보상 받을 방법은 전혀 없다.

스포츠동아 취재진도 28일 이 같은 상황을 겪었으나, 오히려 TM의 운행 주체보다 더 미안함을 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말을 듣고 금세 마음이 풀렸다. 경기장 곳곳에 배치된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이 매일같이 "수고 많다"는 인사를 건네며 좋은 이미지를 심은 덕분에 복잡한 동선과 무더위에 따른 피곤함도 조금은 덜한 게 사실이다. 이동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따라오라"며 빠른 길을 직접 알려주는 친절함은 덤이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회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도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브라질의 이탈리아 페레이라가 27일 지바현 쓰리가사키 해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서핑 경기에서 우승한 뒤 포효하고 있다. 2년 전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가 겪은 슬한 우여곡절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치노미야(일본) | AP뉴시스

2년전 올림픽 출전권 따러 일본행 '여권 도둑·태풍' 우여곡절 끝 성공

2년후 경기 중 보드 파손에도 금조직위, 만화로 만들어 SNS 올라

2020도쿄올림픽을 통해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서핑에서 최초의 금메달을 차지한 브라질의 이탈리아 페레이라(27). 경기 도중 서핑보드가 부서지는 악재를 만났지만, 재빠르게 보드를 갈아타고 결국 정상에 섰다. 올림픽 본선무대도 순탄치 않았지만, 그의 올림픽 출전권 획득 과정은 더욱 극적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페레이라는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2019년 9월 일본 미야자키로 향해야 했다. 그에 앞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그는 출국을 준비하던 도중 여권과 비자를 도둑맞았다. 여권이 들어있던 페레이라의 차를 누군가 파손했다. 차량 안에 있던 그의 소지품 전부가 사라졌다.

페레이라는 급하게 새 여권을 발급 받는 등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미야자키로 떠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앞길을 막아섰다. 그가 타려던 항공기는 태풍의 영향으로 연착됐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18시간이나 더 걸려서야 미야자키에 입성할 수 있었다.

경기 시작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 페레이라는 여행할 때 입었던 청바지 차림으로 무작정 대회장인 해변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서핑보드도 브라질 국적의 다른 선수에게 빌려 경기를 치러야 할 정도로 급박했다. 다행히 경기 시작 전에 도착한 그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페레이라의 스토리는 뒤늦게 조명 받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가 27일 금메달을 획득하자 2년 전의 역경을 만화로 제작해 소셜 미디어(SNS)에 올렸고, 전 세계 스포츠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양궁에 테니스까지...무더위에 죽어나는 선수들

러시아 양궁선수 들것에 실려 나가 썩씩 40도 한낮 테니스도 불만 빚발 IOC, 뒤늦게 오후 3시로 개시 변경

'재주는 꿈이 넘고 돈은 왕세방이 번다'고 했다.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축제 올림픽이 딱 그런 꼴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계권에 투자한 주관방송사의 이익을 위해 경기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해 주면서 선수들만 죽어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2020도쿄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수영 결선이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것은 미국 중계방송사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다. 모두가 아는 비밀이다. 통상적으로 올림픽 수영은 오전에 예선, 오후에 결선을 치르는 형태였지만 도쿄올림픽에선 전날 오후 예선, 이튿날 오전 결선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선수들이 우승하는 장면을 미국의 프라임타임에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다.

1988서울올림픽 때는 육상이 오랜 관행을 깨고 오전에 결선을 펼치는 편법을 썼다. 당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칼 루이스가 출전하는 남자 100m 결선을 포함해 주요 경기들을 미국의 프라임타임에 맞추려고 정지작업이 벌어졌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수뇌부에게 엄청난 뉘돈을 줬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한 번 득이 허물어지지 관계가 됐다.

가뜩이나 습한 일본의 기후적 특성에 더해 지구온난화로 인해 실외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은 애를 먹고 있다. 기온이 섭씨 33도, 체감온도는 38도에 달했던 23일 양궁 여

올림픽의 꽃 육상, 오늘 개막

'인간 탄환' 대전쟁 누가 볼트를 깰까



도쿄올림픽 육상이 30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우사인 볼트의 뒤를 이을 남자 100m의 '인간탄환'으로는 미국의 트레이본 브로멜(왼쪽)이 첫 손가락에 꼽히고 있다. 또 다른 미국의 '천재 스프린터' 이리언 나이턴(가운데)은 남자 200m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여자 100m에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엄마'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가 주목을 받는다. 신화·AP뉴시스

- 1 브로멜, 100m '9초77'...콜먼 등 경쟁자 탈락 강력 후보
- 2 17세 나이턴, 200m '19초84' 볼트 넘어...첫 올림픽 관심
- 3 프라이스, 100m '10초63'...조이너 '10초49' 넘을지 기대

가장 원초적 종목인 육상은 하계올림픽의 하이라이트다.

2020도쿄올림픽 육상이 30일 드디어 막을 올린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남자 100m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단거리 선수로 추앙받아온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35·자메이카)의 후계 구도를 점칠 수 있는 무대이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더 집중된다.

8월 1일 오후 9시50분 결선이 펼쳐질 남자 100m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트레이본 브로멜(26·미국)이다. 최근 페이스가 아주 좋다. 6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뉴 라이브 인비테이션 남자 100m에서 9초77의 개인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는 올 시즌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이다. 브로멜보다 빠르게 달린 이는 볼트(9초58)와 타이슨 게이(9초69), 요한 블레이크(9초69), 아사파 파웰(9초72), 저스틴 게이틀린(9초74), 크리스천 콜먼(9초76) 등 6명밖에 없다.

더욱이 경쟁자들도 줄줄이 나가떨어졌다. 볼트가 은퇴한 가운데 게이틀린은 미국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했고, 콜먼은 도핑 위반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했다. "올림픽 금메달을 간절히 희망한다"는 브로멜은 6월말 미국대표 선발전에서 9초80으로 우승했고, 이달 중순 영국에서 끝난 다이아몬드리그 브리티시그랑프리에서 9초98로 정상에 올라 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남자 200m(8월 4일 결선)에선 '천재 스프린터' 이리언 나이턴(17·미국)이 단연 돋보인다. 미국대표 선발전에서 19초84를 찍어 볼트가 보유했던 20세 이하 200m 세계기록(19초93)을 새로 쓴 그는 도쿄대회가 생애 첫 올림픽이다.

여자 100m(31일 결선)도 엄청난 주목을 받는다. 5년 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35·자메이카)가 강력한 우승 후보다. 출산과 육아로 1년 가량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프레이저-프라이스는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100m를 10초71에 우승했고, 올 6월에는 10초63으로 역대 2위 기록을 수립했다. 이 부문 세계 기록은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가 1988서울올림픽에서 작성한 10초49다.

그 외에 이미 올림픽 메달 9개(금6·은3)를 수확한 상태에서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할 엘리슨 필릭스(36·미국)의 여자 400m(8월 6일 결선)와 1600m 계주(8월 7일 결선), 여자 400m 허들(8월 4일 결선)의 '신성' 시드니 매클로플린(22)과 베네딕트 달릴라 무함마드(31·이상 미국)의 집안대결, 아르망 뒤플랑티스(22·스웨덴)의 남자 장대높이뛰기(8월 3일 결선) 등도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자 랭킹라운드 경기 때는 러시아의 스베틀라나 콤포에비가 무더위에 쓰러졌다. 다행히 곧 정신을 차렸지만 들것에 실려 나갔다. 이런 잔혹한 환경에선 무더위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기량발휘보다 더 중요하다.

지금 선수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종목은 테니스다. 평균 경기시간이 2시간 이상인데, 가장 더울 때 경기가 열리다 보니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다. 한낮에 테니스코트의 열기는 쉽게 섭씨 40도를 넘는 다. 이를 경험한 많은 선수들이 경기시간의 변경을 요구했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는 "오후 3시에 경기가

시작되면 약 7시간 경기를 할 수 있다. 모든 선수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수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대회 조직위원회와 IOC는 25일 공식 입장을 냈다. 조직위 고타니 미카코 스포츠디렉터는 "IOC와 조직위, 국제경기연맹이 조정 중이다. 경기 스케줄은 국제경기연맹의 오랜 경험을 통해 정해진 것이지만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빨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니스는 29일까지는 오전 11시,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낮 12시인 경기개시 일정을 변경해 29일부터 모든 경기를 오후 3시에 시작했다. 김중현 기자 marco@donga.com